

제206회 원자력 안전메시지

원자력 안전문화 실천지침

- 종사자편 -

품 질 안전 본 부
안 전 처



원자력 안전문화 실천지침 개요

01 목적

우리회사의 개정된 「원자력 안전문화 원칙 및 속성」* 에 대해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제시하여 종사자의 안전문화 내재화에 기여

* 최신 국제기준(INPO) 반영 개정('19.5) : 8원칙, 32속성 → 10원칙, 40속성

02 주요내용

☑ 종사자의 원자력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원칙·속성에 입각한 계층별 구체적인 행동지침 제시

구분	주요내용
고위관리자용 (임원 및 소·실장)	'원전 안전성 확보가 어떠한 경우에도 생산성보다 우선시 되는 최우선 가치임을 수시로 강조한다' 등 95개 항목
중간관리자용 (부장)	'안전 현안이 제기되면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명확한 원인분석 및 체계적인 조치 방안을 수립하여 해결하도록 관리한다' 등 126개 항목
초급관리자용 (차장)	'긴급작업이나 계획되지 않은 작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 실행 가능하면서 가장 보수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여야 한다' 등 99개 항목
직원 및 협력사용	'작업에 참여하는 개개인은 작업 목적 및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발전소의 현재 운전 상태와 연관된 타 호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한다' 등 80개 항목

03 향후계획

☑ 핸드북 발간 후 전 직원 및 협력사 배부 ('20.4)

☑ 원자력 안전점검의날 안전메시지로 지속 전파(~'20.6)

-【종사자편】안전문화 원칙 1·2·3, 【업무환경편】안전문화 원칙 6·7·9, 【의사결정편】안전문화 원칙 4·5·8·10

원자력 안전문화 실천지침 _ 종사자편

원자력 안전문화 원칙 4항

원자력 안전문화 원칙 1(PA, Personal Accountability) 속성 3가지

모든 종사자는 원자력안전에 책임이 있다.

- 원자력 안전문화 속성 -

(규정)
모든 종사자는 원자력 안전규정 및 절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준수한다.

(업무 책임의식)
모든 종사자는 원자력안전을 위한 본인의 업무에 대해 책임을 이해하고 실천한다.

(팀워크)
모든 종사자는 원자력안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본인의 업무에 대해 조직 안팎으로 소통하고 협력한다.



원자력 안전문화 실천지침
한국수력원자력

고위 관리자

- 원자력 안전기준이 조직 전체에 걸쳐 체계적으로 엄격하게 준수 되도록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.

중간 관리자

- 건전한 원자력 안전문화 조성 및 증진을 위하여 높은 책임감을 갖고 리더십을 발휘하여 매사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초급 관리자

- 조직 구성원들이 전문기적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협업 및 팀워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.
- 원자력 안전의 위해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, 개선하도록 조직 구성원들을 독려하여야 한다.

직원 및 협력사

- 개개인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.
- 주어진 과업에 대하여 준비, 계획 및 실행 등 업무 전반에 대한 높은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매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원자력 안전문화 실천지침 _ 종사자편

원자력 안전문화 원칙 4가지

원자력 안전문화 원칙 2(QA, Questioning Attitude) 속성 4가지

모든 종사자는 자만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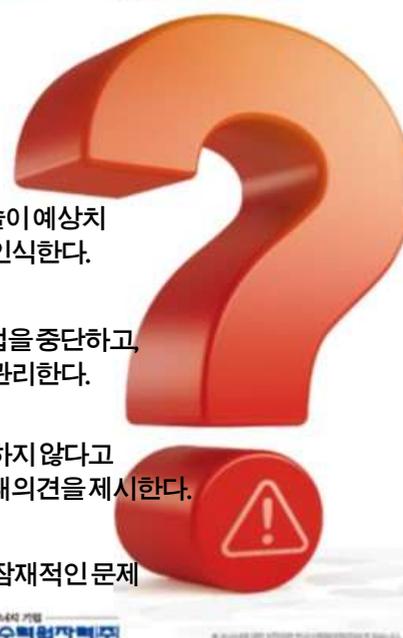
- 원자력 안전문화 속성 -

(원자력의 특수성)
모든 종사자는 복잡한 원자력기술이 예상치 못한 사건을 발생시킬 수 있음을 인식한다.

(불확실성 확인)
모든 종사자는 불확실한 경우 작업을 중단하고, 작업 재개 전 리스크를 평가하고 관리한다.

(가정사항 확인)
모든 종사자는 어떤 사안이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의문을 제기하고 반대 의견을 제시한다.

(자만 방지)
모든 종사자는 발생 가능한 실수, 잠재적인 문제 및 리스크를 인지하고 대비한다.



고위 관리자

- 원자로 반응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활동들이 특별한 관심과 주의, 감시감독 하에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.
- 관리자들이 성능저하 발생 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합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
중간 관리자

- 안전현안을 평가할 때 고려하지 못한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유의하여야 한다.
- 원자력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가정사항 · 의사결정 사항에 대하여 의문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

초급 관리자

- 작업승인은 일반적인 발전소 운전상태에 기반하여 작업조건 만족을 가정하지 말고 현재의 발전소 상태를 기준으로 해당 작업을 위한 전제조건이 충족되는지 확인 후 결정하여야 한다.

직원 및 협력사

- 과거에 수행한 작업방법 및 조건, 결과 등에 의존하지 말고 작업 수행 시 마다 작업계획과 내용, 조건 등을 철저히 검토, 확인하여야 한다.
- 예상하지 못한 시험결과가 도출되는 경우 이를 합리화하기 보다는 의문을 갖고 명확히 현상을 이해한 후 다음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.
- 작업방법, 절차 등이 명확하지 않거나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작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.

원자력 안전문화 실천지침 _ 종사자편

원자력 안전문화 원칙 4대

원자력 안전문화 원칙 3(CO, Safety Communication) 속성 4가지

모든 종사자는 원자력안전에 중점을 두고 의사소통한다.

- 원자력 안전문화 속성 -

(업무 소통)
모든 종사자는 모든 업무 활동에서 원자력안전을 염두에 두고 소통한다.

(의사결정 근거)
리더는 운영 및 조직의 의사결정 근거에 대해 시의 적절하게 소통한다.

(투명한 정보 공유)
모든 종사자는 수직, 수평 관계에 있는 직원 및 조직과 투명하고 솔직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한다.

(방침)
리더는 원자력안전 최우선 방침을 수시로 전파하고 강조한다.



원자력 안전문화
한국수력원자력

고위 관리자

- 현안에 대한 정보를 조직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폭넓게 공유하여야 하며, 공유된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, 확인하여야 한다.
- 조직 구성원에게 열린 마음과 진솔한 자세로 대하고, 그들의 반응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.

중간 관리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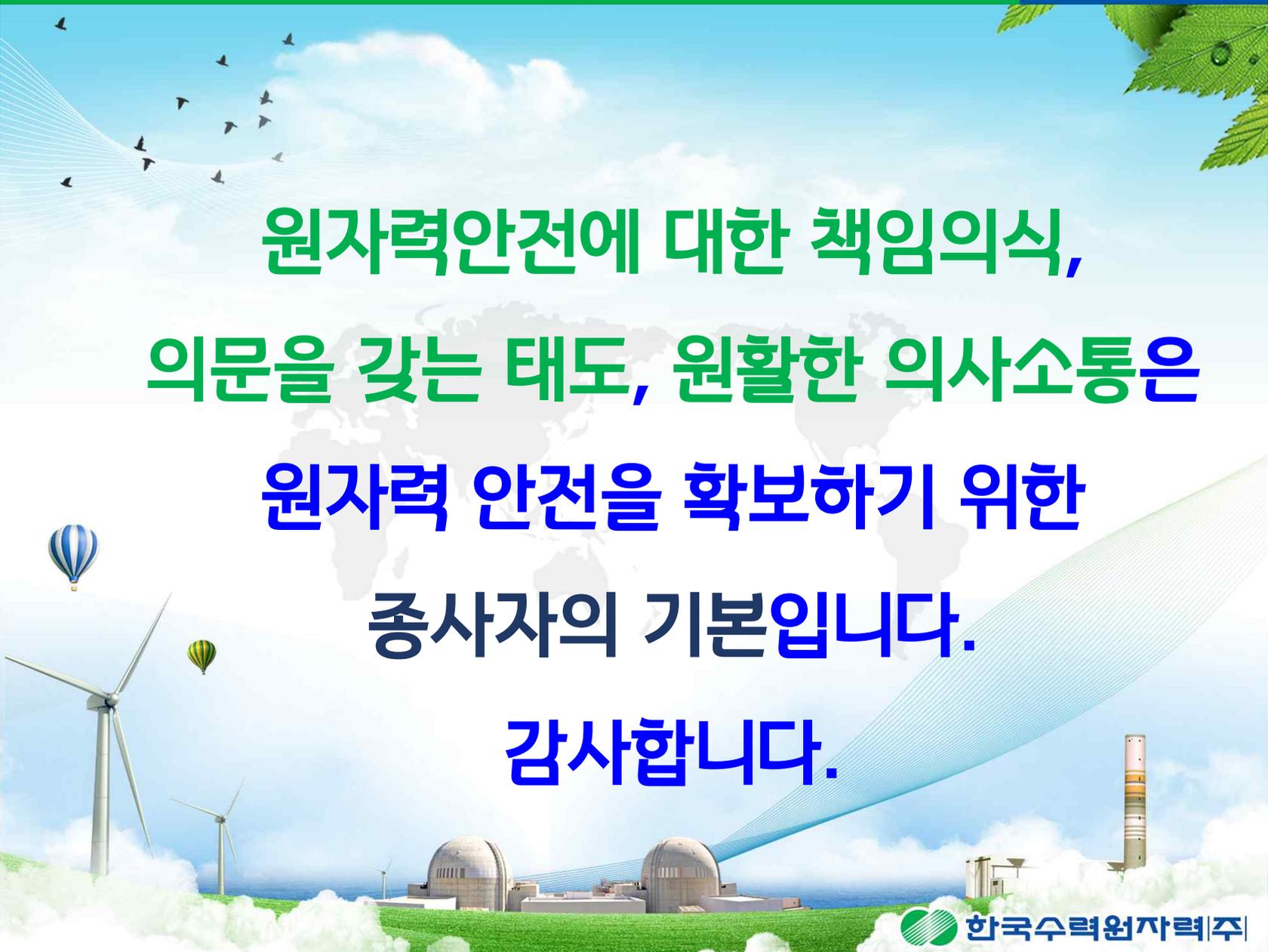
- 원전 운영과 관련된 중요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결과, 잠재적 문제점 및 작업금지 기준 등에 대해 조직 구성원들과 신속하게 소통하여야 한다.
- 조직 구성원들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그들의 우려사항에 대해 경청하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.

초급 관리자

- 회의 및 일상업무에서 안전메시지 전파가 생활화 되도록 유도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여야 한다.
- 조직 구성원들에게 원전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사항 전달 시 의도하지 않았거나 서로 상충되는 메시지가 함께 전달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.

직원 및 협력사

-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관련부서와 긴밀하게 진행상황에 대해 의사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.
- 원전 운영 및 관리 결정에 대한 배경/근거 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경우 자유롭게 의문사항을 질문하고 확인하여야 한다.



**원자력안전에 대한 책임의식,
의문을 갖는 태도, 원활한 의사소통은
원자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
종사자의 기본입니다.
감사합니다.**